

2026년 9월 넷째 주, 구역 공과

34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34절(신약 216)-

예배순서

• 찬송: 49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516/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 음식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우리 기도 제목 1순위는 단연 ‘가족 구원’이다. 성경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한다(행 16:31). 그러나 명절마다 완고한 가족의 벽 앞에 부딪히면 확신 대신 깊은 패배감과 자책이 먼저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이 약속은 믿음의 가문이나 영적 거장에게 주신 상급이 아니다. 감옥 터를 뒤흔든 지진 앞에 통제력을 잃고 칼을 빼 들어 자결하려던 절망적인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에게 떨어진 말씀이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

1. 내가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말고, _____가 되라.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다. 한밤중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자,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포자기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행 16:27). 바로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외쳤다(행 16:28). 도망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살려준 두 사도 앞에 엎드린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며 전 인격적인 항복을 선언하였다(행 16:30). 이에 바울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였다(행 16:31). 간수에게는 집안을 전도할 계획이나 실력이 없었다. 오직 스스로 살고자 예수 앞에 엎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가족 전도에 지치는 이유는 스스로 가족을 고치려는 ‘구원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파이프는 물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며, 오직 거대한 강에 잇대어져 생수를 흘려보낼 뿐이다. 우리 역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파이프다. 내 조급함과 논쟁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집안의 닫힌 문을 여신다.

2. 내 말이 아니라, _____이 복음이 되게 하라.

바울은 간수의 집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였다(행 16:32). 이때 가족들이 목격한 것은 집안에서 군림하던 가장의 완전히 뒤집힌 몸이었다. 간수는 피투성이 죄수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 손으로 상처를 닦아내었다(행 16:33). 이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씀처럼 죄수들을 집으로 모셔 들여 식탁을 베풀었다(행 16:34). 신분의 벽을 허물고 형제로 영접한 것이다. 가족들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평생 꺾이지 않던 가장이 상처를 씻기고 밥상을 차려내는 ‘몸의 회개’를 보았다. 말씀 위에 거룩한 섬김이 더해졌을 때 온 집안이 구원의 잔치집으로 변하였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표정과 행동에서 결정된다.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가족에게 알뜰한 말재주나 웅은 소리로 복음을 심을 수는 없다.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않고 “제사는 우상숭배”라며 쏘아붙인다면 위선으로 들릴 뿐이다.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먼저 허리를 숙여 상처를 닦아주고 대접하는 ‘낮아진 몸’이다.

3.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_____에 맡겨드리라.

그날 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으나, 간수에게는 날이 밝으면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가두어야 할지 도망시켜야 할지 현실적 딜레마가 남았다. 그러나 성경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기록한다(행 16:35).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을 명령하였다. 간수의 고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임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정한 마감 시한’을 고집하다 지쳐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곤 한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묵묵한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다. 구원의 시계는 하나님의 손목에 채워져 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은혜의 통로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 새매”의 아침이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나눔과 기도

-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에 구원의 문이 열렸듯이, 나의 가문에는 언제, 누구를 통해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가? (신앙의 1세대라면, 자신의 간증을 해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작성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